2 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미국-뉴욕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천불)

구 분	12월 당월		1~12월 누계	
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
농림축수산물 전체	10,878,829	-	132,164,114	5%
소 비 재	5,191,034	4%	61,573,880	5%
중 간 재	1,805,721	1%	24,508,767	15%
수 산 물	1,512,955	-4%	16,550,370	--
벌크농산물	1,338,846	-20%	19,349,811	-12%
임 산 물	1,030,274	23%	12,420,281	15%

자료원 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2월 기준 자료)

※ 소비재 (야채, 과일, 와인/맥주, 스낵류, 가공 야채과일, 육류, 견과류, 커피, 낙농제품, 향신류, 화훼류 등)
중간재 (가축, 식용기름, 설탕류, 종자류 등)
수산물 (어류, 갑각류, 해조류 등)
벌크 농산물 (고무, 코코아, 커피 원료, 담배, 차류, 곡류 등)
임산물 (목재류, 패널 제품 등)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누적금액, 단위: 천불)

품목	작년 ('11.12)	금년 ('12.12)	증감%	1위		2위		3위		한국산
			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금액
배	96,277	73,807	-23%	아르헨티나	28,097	한국	24,191	칠레	12,327	24,191
신선버섯	103,111	117,658	14%	캐나다	108,281	멕시코	8,424	중국	6,132	2,476
인삼(엑기스)	21,358	23,547	10%	프랑스	11,233	중국	5,489	한국	4,116	4,116
인삼뿌리(재배)	21,424	31,105	45%	중국	19,907	홍콩	5,136	캐나다	2,612	1,684
스낵류	6,450,947	6,784,310	5%	캐나다	3,050,688	멕시코	1,508,998	독일	304,700	31,093
가공과일채소	6,335,636	6,761,738	7%	캐나다	1,324,426	멕시코	1,151,312	중국	998,102	53,515
낙농제품	1,398,359	1,629,314	17%	뉴질랜드	692,565	캐나다	128,321	독일	98,117	9,815
과채류주스	1,971,309	1,926,908	-2%	중국	634,822	브라질	313,076	아르헨티나	236,483	1,817
견과류	1,767,205	1,748,187	-1%	베트남	399,568	멕시코	300,830	인도	285,465	2,263
와인/맥주	8,533,275	8,914,476	4%	멕시코	1,826,299	이태리	1,544,072	프랑스	1,385,995	6,739
화훼류	1,545,235	1,620,036	5%	콜롬비아	646,252	캐나다	283,725	네덜란드	187,367	2,002
커피(인스턴트)	1,189,340	1,217,072	2%	캐나다	407,327	컬럼비아	148,861	멕시코	145,509	6,828
향신료	1,257,209	1,334,071	6%	인도	238,923	인도네시아	210,136	중국	107,368	2,833
차류(허브)	642,440	666,709	4%	중국	138,059	캐나다	108,250	아르헨티나	74,667	7,776
종자류	933,019	1,383,605	48%	칠레	338,148	캐나다	277,757	인도	170,340	5,741

※자료원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12월 기준 자료)

※미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캐나다(28,896,383), 멕시코(17,111,653), 중국(10,132,274) 순이며, 일본(876,078) 27위, 한국(492,002)로 38위순으로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음

※ 미국내 한국산 농식품 수입품 중 가공과일채소(45%), 신선버섯(26%), 종자류(26%), 커피(인스턴트포함, 16%)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나 낙농제품(-18%), 쥬스류(-64%), 스낵류(-2%) 등은 감소했음

ㅇ 한국산 수입 증감내용

■ 2012년 12월 한국산 농림 수산물 전체 수입액은 492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8% 상승

- 소비재 농축산물: 전년도 대비 293백만불에서 331백만불로 13% 증가
- 수산물 : 전년도 대비 120백만불에서 108백만불로 10% 감소
- 중간재 농축산물 : 전년도 대비 33백만불에서 40백만불로 23% 증가
- 벌크 농산물 : 전년도 대비 7.0백만불에서 8.3백만불로 17% 증가
- 임산물 : 전년도 대비 3.0백불에서 3.6백불로 21% 증가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 현안

■ **미국내 한미 FTA 관련 행사 개최**

국제전략문제연구소(CSIS)-한미경제연구소(KEI) 공동주최 FTA 1주년 기념행사

- 일시 : 3월 12일(화)
- 장소 : CSIS 컨퍼런스 센터, 워싱턴 D.C
- 참석 인사
  : 존햄리(CSIS 소장), 최영진(주미한국대사), 매튜 굿맨(전국무부 선임고문), 캐슬린 스티븐스(전 주한 미국대사), 카란 비티아(전USTR 부대표), 스캇 밀러(CSIS 국제산업 석좌)
- 주요 내용
  : 발효 1주년을 기념하여 한미간 FTA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한미간 향후 경제 관계를 전망

■ **미국, 대한국 육류 수출 급감**

지난 2월, 미국 소비자 단체인 Public Citizen 성명 발표

-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효과로 한국 수출시 40%에 달하던 소고기,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관세 철폐로 톤당 1,300달러를 절감해 연간 누적액이 9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
- 그러나 미국산 육류의 대한국 수출은 현재 10% 가까이 감소해 다른 수출품목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미국 육류 생산업자(소고기, 돼지 고기 및 가금육)들은 FTA 발효 9개월만에 1억3천6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미정부를 정면 비판함

  * Public Citizen 사이트: (http://www.citizen.org/fta-trifecta-fac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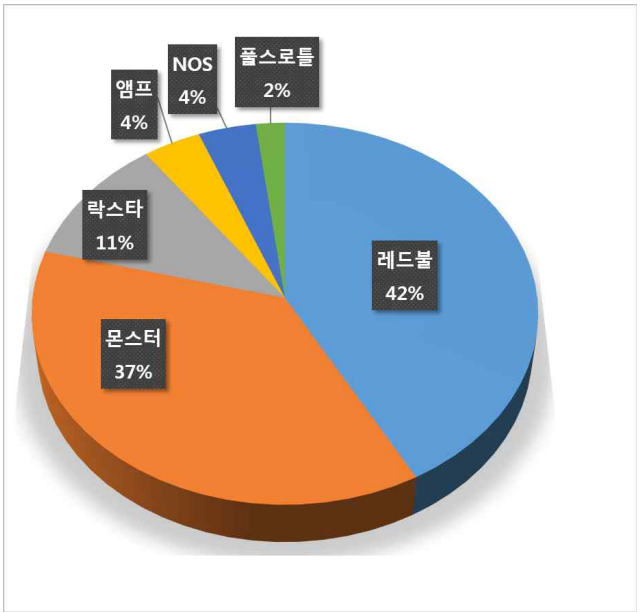
□ 특정품목 시장동향 : 에너지 음료 시장(Energy Drink)

○ 현황

미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에너지 음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. 주 타겟층인 10-20대를 넘어 업무 혹은 운동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며 음용 후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바쁜 현대 소비자들에게 주요했다. 반면에 최근 사망 사고로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된 에너지 음료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. 이러한 논란 속에도 에너지 음료와 샷 드링크 매출은 2017년까지 2백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○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 점유율

2012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



* Beverage Industry Insider 2012

2010-2012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 변화

(단위: 백만불)

순위	2012	2012 매출	2011	2011 매출	2010	2010 매출
1	레드불	2,950	레드불	2,300	레드불	2,200
2	몬스터	2,600	몬스터	1,900	몬스터	1,500
3	락스타	780	락스타	660	락스타	400
4	앰프	300	앰프	330	NOS	200
5	NOS	250	더블샷	250	더블샷	180
6	풀스로틀	140	NOS	220	앰프	140

* Beverage Industry Insider 2012

■ 레드불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몬스터가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
■ 전체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드링크류가 78%에 이르며 샷 음료가 18% 나머지 4%는 일부 혼합 음료류가 4%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

2011-2012 에너지 샷(Shot) 드링크 시장 점유율 변화

(단위: 백만불)

순위	2012	2012 매출	2011	2011 매출
1	5 Hour energy	896	5 Hour energy	996
2	6 Hour Power	30	6 Hour Power	22
3	레드불	25	웍스	14
4	몬스터 힛맨	10	E6	5
5	스태커 2	4	스태커2	4
6	니트로 투 고	3.4	레드라인 파워	3.5

* Beverage Industry Insider 2012

■ 5 Hour energy가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샷 드링크 브랜드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 각종 행사에 후원을 하고 광고에 집중하고 있음

■ 지난 몇 년간의 시장 점유율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 드링크와 샷 드링크 시장은 레드불, 몬스터, 락스타, 5-hours energy와 같은 소수의 브랜드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

미국내 판매중인 대표 에너지 드링크 제품	미국내 판매중인 대표 에너지 샷(shot)드링크 제품

○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 분석

- 에너지 음료와 샷 부문은 전체 비 알코올 시장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좋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60%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

- Packaged Fact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미국내 에너지 음료와 샷 부문의 누적판매액이 1백25억달러에 달하며 주 소비 연령은 18-34세임

- 시장 성장 흐름을 살펴보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성인의 비율이 2006년 13%에서 2012년에는 17%까지 성장했으며 이중 5%의 성인이 한달에 5-7차례, 2%의 성인이 10차례 이상 음용함

- 에너지 드링크와 샷 드링크의 소매 유통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부터 일반 그로서리 마켓, 99센트 스토어 그리고 델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매매장에 판매중임

- 절반 이상이 편의점(59%)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(13%), 일반 그로서리 마켓(10%), 창고형 매장(5%), 드러그스토어(2%) 순임

"<저작권자 ⓒ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"